

아일랜드, 우유 생산협동체 지원 강화

아일랜드 농식품 및 농촌개발부 수상(The Minister for Agriculture and Food) Mary Coughlan TD는 우유 할당량 관련 규정을 포함한 2005년도 우유 할당제 재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개년 우유 할당량 재조정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개별 농기업의 우유 할당량 구매·판매 가격을 2005년도에는 리터당 17.5 센트, 2006년에는 리터당 12센트로 삭감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Mary Coughlan TD 수상은 이번 계획이 낙농업자들에게 할당된 우유의 구매·판매 가격에 대한 불분명성을 종식시키고, 공동농업정책(CAP)의 중간평가에서 언급되었던 보다 경쟁적인 우유 생산을 위해 필요한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5년도 계획안은 우유 할당량의 구매·판매에 적용되는 새로운 고정 가격이 발효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Coughlan수상은 2004년 12월에 이번 계획의 대략적인 사안을 발표하며 2005년도의 재조정 계획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1. 우유 생산협동체(Milk Production Partnerships)

이번 우유 할당제 재조정 계획은 우유 생산 협동체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우유 생산 협동체 가입신청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몇몇 변칙적인 가입 과정을 원천봉쇄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신규 가입

자에 대한 가입 자격 수정이다. 특히 500,000 리터 이하 규모의 우유 생산 협동체에 대하여 부모가 조합원인 신규 가입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인정되도록 자격 제한이 완화되었다

Mary Coughlan TD 수상은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재 최저 350,000리터인 가입자격 수준을 대폭 완화시킴으로써 협동체 조직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우유생산협동체 신규 가입농가의 소득을 최소한 24,000€로,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27,000€로 향상시키도록 하는 안이 결정되었다.

우유생산협동체의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정도 다소 간소화 되었다. 협동체간 합병과 협동체 가입에 우선적인 소유 토지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었고, 협동체에 가입하는 농민은 이전 2개년도 협동체의 할당량의 최소 70%이상 생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로써 할당량 생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욱이 이를 통해 자격을 갖춘 우유생산협동체에게 할당량이 분배될 전망이다.

Mary Coughlan TD 수상은 우유생산협동체 재조정 계획에 따라 각 협동체들이 이에 발맞추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협동체 진입과 관련하여 개별 농가들은 필요할 경우 아일랜드 농식품 및 농촌개발부에 조언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2. 개별농가단위의 통합(Family Farm Consolidation)

Mary Coughlan TD 수상은 개별농가단위의 통합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몇 가지 제한조건 아래 한 농가의 할당량을 한 농가내의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우유생산 농민은 한 농가내의 다른 구성원에게 농지와 할당량을 임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1년 후에 그 할당량을 자신이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농가단위 낙농기업의 통합을 지원하는 이 정책을 통해 자신의 할당량을 양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할당량 임대인은 자신의 농업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단일지불제(single farm payments)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이번 재조정 계획 이전에 할당량을 구매한 농민은 할당량과 그와 관련된 토지를 가족 구성원에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현재의 가족 구성원에게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새로운 규정들은 2005~2006년도의 할당량에 대해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05년도에 할당량과 관련하여 구매한 토지는 2009년까지 해당 토지를 소유해야만 한다. 기타 새로이 수정된 우유 할당량 정책의 종합적인 세부 시책은 우유협동조합에서 이용할 수 있다.

끝으로 Mary Coughlan TD 수상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낙농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낙농시장과 산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유할당량제를 확립하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펼칠 것입니다.”

자료: 아일랜드 농식품 및 농촌개발부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